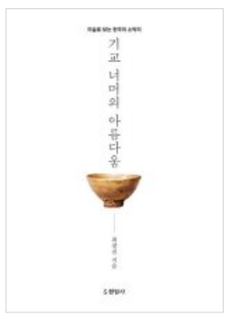
소박의 美에서 우리문화의 정수를 읽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기교 너머의 아름다움

최광진 지음



한옥, 석탑, 고려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 막사발, 서예, 산수화…. 열거한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들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자연과 연관돼 있다. 여기에는 자연에 대한 경외와 함께 그것에서 이상을 찾으려는 미의식이 투영돼 있다.

서양의 문화가 인간 중심적 문화라면, 우리의 전통문화는 자연친화적이다. 전자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후자는 인위성을 배제한 '무위자연'에 중점을 뒀다. 마찬가지로 서양 역사에서 인간과 자연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대상으로 그려졌다면 동양에서는 이상적인 조화로 상정됐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풍류를 좋아했다. 속세를 떠나 산중에 은일하는 '죽림칠현' 같은 중국식 풍류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최치원의 '난랑비서'에 나오는 화랑도의 그것처럼 현세와 탈속의 극단과는 다른 '뭇 생명들과의 어우러짐'이었다.

'한국의 미학'의 저자 최광진 홍익대 초빙교수는 우리의 미와 멋을 자연에서 찾는다. 인위적인 기교를 뛰어넘는 '천인묘합'(天人妙合)이라는 것이다. 그의 책 '기교 너머의 아름다움'은 자연과 인간의 친근한 접화(接和)를 중시했던 한국인의 소박미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가 말하는 소박미와 한국의 멋은 이런 것이다. 서양의 미가 "자연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얻은 인위적인 비례와 조화"라면 한국의 멋은 "자연과 인간이 개성이 접화된 상태"다. 다시 말해 인위적 기교를 초월하는 천인묘합의 경지가 우리의 미다. 그렇게 '소박의 미'는 인간과 자연의 상생에서 피어난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명당 터를 중요시했다. 정원을 만들 때 가급적 인위를 배격했는데 자연과 구릉과 풍광을 최대한 살려 조성했던 것은 그러한 이유다.

북경의 자금성은 주변에 산이 없다. 좌우대칭으로 계획한 탓에 인위적인 숭고함을 발한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복궁은 자금성과 달리 소박하다. "산자락에 위치하여 주산과 좌청룡 우백호를 곧바로 체감할 수 있어" 조화를 느끼게 한다. 흔히 말하는 한국의 비보풍수는 자연을 그대로 살려 기운을 보해주는 방식이다.

정원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의 정원은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살린 지점에 정자와 누각을 세웠다. 대개의 경우 집터 뒤로는 구릉이 위치하는데 자연스럽게 후원이 된다. 시냇물이 흐르는 장소나 연못 인근에 정자를 짓고 자연을 즐겼다.

담양 소쇄원은 한국 정원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다. 당파 싸움에서 벗어난 선비가 자연과 벗하기 위해 지은 별서 정원이다. 봄이면 계곡 사이를 흐르는 물과 푸른 대나무, 그리고 사이사이 피어난 꽃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저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류의 원조를 도자기로 본다. 소박한 삶을 일궈온 우리 선조들의 미의식이 발현된 문화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의지와 기교를 넘는 "자연의 일부인 흙과 소통하고 타협해야" 가능한 결실이다. 나아가 꾸밈없는 소박함이 오래도록 마음을 끄는 요인인 것이다.

일본의 사상가이자 미술사학자인 야나기 무네요시는 조선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불규칙 속의 규칙, 미완성 속의 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그가 전개했던 민예운동은 한국 공예품에서 받은 영감이 토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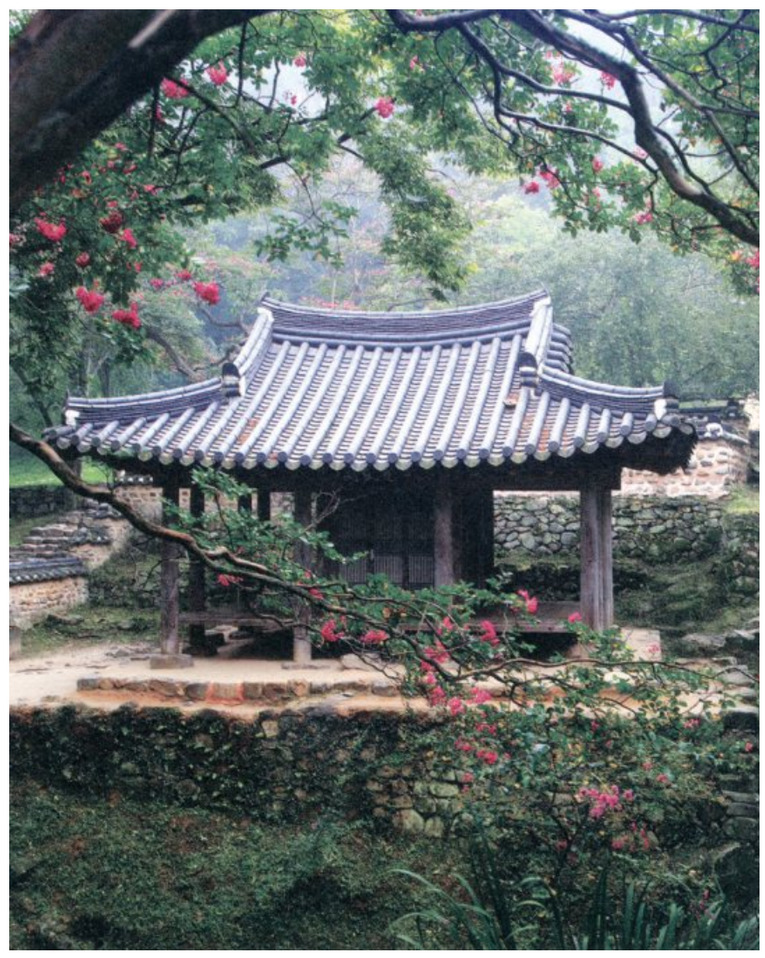
문인화에도 자연을 탐한 소박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왕실이나 귀족, 선비들이 그린 그림은 기교와는 다른 정신적인 특질이 배어나온다. 직업 화가들이 눈에 의존해 대상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면 문인화가들은 대상 내면의 기운을 포착했다.

매난국죽에 밴 군자의 덕성은 "자연과 공명하고 소통한 결과"다. 사실적인 외양이 아닌 의를 그리는 '사의'(寫意)가 문인화의 핵심이다. 매화에 몰입했던 조희룡은 매화 병풍을 치고 잠을 잤다. 매화를 흠모한 나머지 매화 관련 시를 짓고 매화차를 마셨던 선비다.

소박미의 경지는 무위자연이다. 자연과 동등하게 교류하고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의식의 발현이다.

〈현암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담양 소쇄원의 사랑채 역할을 하는 광풍각.

당시 일백수

송재소 역해

한국한문학회 회장을 지내고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송재소 교수가 최고의 당시(唐詩) 100수를 엮은 '당시 일백수'를 펴냈다.

5만여 수가 넘는 당시 중에서 작품 100수를 고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역대 간행돼 온 수많은 '당선시집'이 도움을 줬지만, 한편으로 시를 뽑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일정하지 않는 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모든 선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시가 적어도 1000여 수가 되었다. 그 가운데 100수를 고르는 작업은 송 교수의 기준에 따랐다. 책에서 다룬 시는 101수이고 여기에 해설 등에서 보충해 소개한 시까지 합하면 모두 116수의 작품을 수록했다. 책 제목에서는 '100'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을 감안했다.

한시(漢詩)를 사랑하는 독자들이 최고로 뽑는 시가 바로 당나라 때 창작된 작품들이다. 이 시기의 시들을 '당시'라 통칭하는데 하나의 장르로 수용된다. 당시가 흥성한 원인은 중국을 통일한 이후 경제적 발전 뿐 아니라 태종, 고종, 현종을 비롯한 왕들의 문학 애호가였다는 사실도 이유다. 책에는 왕유의 '산중의 가을 저녁', 이백의 '장진주', 두보의 '달밤', 장계의 '풍교에 밤배를 대고', 이상은의 '무제-상견시난', 백거이의 '숯 파는 늙은이' 등이 수록돼 있다. 일반에게도 많이 알려진 시들은 절창이며 아름답다.

"만나기도 어렵더니 이별 또한 어렵구나/ 봄바람, 힘이 없어 온갖 꽃 시드네// 누에는 죽어서야 실을 다 뽑아내고/ 촛불은 재가 돼야 눈물이 마른다오"

이상은의 '무제-상견시난'은 이별한 여인을 그리워하는 남성의 연가다. 송 교수는 "작중화자의 그리움도 누에가 실을 뽑듯 죽어야 끝나는 그리움"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돌베개·3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주 쓰레기가 온다

최은정 지음

2018년 4월 중국의 우주정거장 톈궁 1호가 추락했다. 톈궁 1호가 지구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추락 예측 범위에 포함됐다. 세계 각국은 실시간으로 추락 궤도를 예측하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피해에 대비했다. 한국도 위성추락상황실을 운영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톈궁 1호 추락은 성능을 다한 인공우주물체인 우주 쓰레기의 문제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우주과학자인 최은정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연구실장의 책 '우주 쓰레기가 온다'는 영화 속 이야기일 것 같은 우주 쓰레기 문제를 다뤘다. 저자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날로 치열해지는 우주 개발 경쟁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현재 지구 궤도에 떠다니는 우주 쓰레기는 2만여 개다. 그중 매년 평균 400여 개 이상이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기권에서 불타 사라지는 것들도 있지만 파편이 남아 지상까지 떨어지는 것들도 있다. 6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가 개척해온 우주 뒤편에는 쓰레기 문제가 남아 있다. 전 세계 국가는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 수를 파악하고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우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 연합우주작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우주감시네트워크. 이곳에서는 발견된 모든 인공우주물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목록화한다.

한국의 우주감시 시스템은 '아울넷'이라 불리는 우주물체전자광학감시네트워크다. 다섯 대로 구성된 시스템인 각각의 망원경은 전 세계에 흩어져 무인으로 운영된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원격조정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저자는 우주 쓰레기를 인류가 맞닥뜨릴 환경문제로 바라보며, 우주 쓰레기 대책 마련을 환기한다. 지속가능한 우주활동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갈매나무·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월의 청춘 1·2

이강 지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그 시절 청춘의 기록'

1980년 5월,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버린 청춘들의 아련한 사랑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오월의 청춘'의 대본집이 출간됐다. '오월의 청춘'은 쉽게 다룰 수 없는 역사적 아픔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그 시대의 청춘 희태와 명희의 로맨스에 자연스레 녹여낸 작품으로 최근 안방극장에 감동과 위로를 전하며 막을 내렸다.

'오월의 청춘'을 쓴 이강 작가는 드라마 스페셜 '사교-땐스의 이해'(2019), '집우집주'(2019), '아득히 먼 춤'(2016), '스파이'(2015), '액자가 된 소녀'(2014), '다르게 운다'(2014) 등 다양한 작품으로 시청자들과 만나왔다.

이 작가는 대본집에서 "짧은 순간이나마 타인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는 드라마로써 더 많은 이들이 당신의 슬픔을 안다고, 광주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월의 청춘'을 쓰게됐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총 두권으로 제작된 대본집에서는 이 작가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지문 표현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실제 방송되지 않은 장면의 대사와 회별 명장면 스틸컷, 작가의 친필 사인, 미공개 자료 등을 실어 색다른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

이 작가는 "그 오월에 사라져 사랑하는 이들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수십, 수백 명에 이른다"며 "이 순간에도 '밀물의 삶'을 헤엄쳐 나가는 수천, 수만의 희태에게 사랑과 진심을 담아 명희의 기도를 보낸다"고 전했다. 〈김영사·각 1만65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7월호

藝鄕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옥상 농원, 베란다 텃밭

도시농부가 자란다

- '나는 행복한 흙 파머' 늘어나는 식물 덕후들
- 도시농부의 감성 끌어올리는 책들
- 반려식물 돌보는 애플리케이션
- 이기자의 베란다 텃밭 도전기

남도 오디세이 美路 味路

완도는 숨결이 푸르다

- '고산의 노래' 보길도와 완도 수목원
- 다해산 모듬해초, 바로즐 전복차우더
- "여기 어때?" 전국에 입소문 난 '카페 달스윗'

클릭, 문화현장⑲

인권·평화, 예술의 신선한 발언

'신안 예술섬'에서 열리는 뜻 깊은 전시들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예능 대통령' 넘보는 '농구 대통령 허재'

예향 초대석

등단 55년 '달을 긷는' 작가 작가 한승원

"글 쓰는 한 살아있고, 사는 한 쓸 것"

문화 트렌드

첨단 기술을 만난 예술 더 창조적일 수 있을까?

문화 화제 - 핫 플레이스 문경 '화수헌'

200살 폐가 화려한 부활 8만 여 명 방문 '관광'이 되다

살고 싶은 집, 이야기가 담긴 집⑥

광주 수완지구 안톤숄츠·정유진 부부 주택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①

영화 '밀정'과 라벨의 '볼레로'

문화를 품은 건축물⑪

거대한 미디어캔버스 형상화한 백남준아트센터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㊾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가창력 가수들

문화 바이러스 퍼뜨리는 예술단체④

브라스 앙상블 'Jolly Brass Sound'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를 가다②-대흥사

선향, 법향, 다향 깨달음의 천년가람